

東京지역 韓人の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오사카지역 韓人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Tokyo Area

이 제 환(Jae-wha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3.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III.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추구 |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실체 |
| II. 동경지역 한인의 일상적 고민 | 2.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체 |
| 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 3.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2.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실체 | IV.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분석하여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행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후, 이 연구에 앞서 수행하였던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행태와 비교하면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3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4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1) 동경지역 한인의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실체 그리고 대처 행태, (2)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체, (3)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러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원, 정보매체, 재일한인, 재일동포, 동경, 오사카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veryday information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Tokyo area. The discussion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residents in Tokyo and those in Osaka, with an empha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behaviors of the Two resident areas. Employing survey and interviews methods, it attempts to illustrate some features in their everyday information need and seeking pattern, and to scrutiniz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details, the discussion includes (1)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everyday concerns and agony, (2) the attitudes and methods to meet with such concerns and agony, (3)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urces which they prefer to satisfy with their information needs, and finally, (4) the factors which have impacts on their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

Key Word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Japanese, Koreans in Tokyo, Koreans in Osaka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과제로 수행되었음.(KRF 2003-005-A00005)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2005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논문의 母胎가 되는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현상에 관한 연구'는 永住를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在日韓人의 삶을 정보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 처럼 모태가 되는 연구의 목적은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정보의 영향이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사회에서 '주변 사회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각종 '차별과 소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재일한인의 삶을 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와 그들이 처해 있는 정보환경을 통해서 가능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¹⁾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는 먼저 在日韓人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및 이용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어, 재일한인사회가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심각성을 일본 주류사회와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정보빈곤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보빈곤과 정보환경 그리고 정보행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사회의 정보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에 따라 우리가 1차적으로 수행한 작업은 (1) 재일한인사회의 특성을 정보유통의 측면에서 조사하고, (2)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봉착하는 고민을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3) 이러한 정보요구의 충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와 관련한 제반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우리는 2004년 2월과 4월에 재일한인의 최대 거주 지역으로 파악된 오사카지역을 방문하여 그곳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을 조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2004년 9월에 관련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²⁾

이번 논문은 오사카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東京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오사카지역과는 여러 면에서 상이한 동경지역

1)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日常에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 연구는 2년(2003년 10월-2005년 9월)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획되었다. 연도별 연구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년도에는 재일한인사회의 특성과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2차년도에는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일본인 주류사회와 비교하면서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정보빈곤 현상을 규명하고 향후 정보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이계환, 장덕현, 이연옥, "在日漢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222-248. 이 논문에서는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 그러한 고민에 대한 인식 패턴과 대처 방식,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나 매체,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나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 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제반 특성을 정리하고, 양대 지역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정보행태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과 실제,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제, 그리고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러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비교하면서 양 지역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지역의 한인사회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잔류해 온 한인(그리고 그 후손)으로 주로 구성되며 특별영주권을 갖거나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경지역의 한인사회는 해방 이후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정착을 시작한 한인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규모와 세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물론 동경지역에도 해방 전부터 거주해 온 특별영주권자나 귀화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체적인 규모와 응집력에 있어 새로운 이주 집단에 비해 점차 뒤쳐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현지의 한인사회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에 새롭게 거주하기 시작한 한인 집단을 해방 이전부터 이미 거주해 온 한인 집단(old comer)과 구별하여 뉴커머(new comer)라고 호칭하고 있다.³⁾ 이들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그 규모가 약 18만 명에 이르며, 주로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동경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뉴커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지역에서 뉴커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올드커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
- 3) 2004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뉴커머 집단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그룹은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였으나 학업 종료 후 귀국하지 않고 정착을 시도한 경우이다. 이 그룹은 유학기간과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경과하고 일본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뉴커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본인이나 영주권을 가진 한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 영주하게 된 사람들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근자에 들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단기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일본에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삼고 체류 중인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정확한 통계의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합법적 단기체류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경제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 등을 통해 일본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입증되면 정주권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원에 의해 발각되면 일정 기간 구류 후 모국으로 송환된다.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고 일본에 잔류해 있는 불법체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4)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제시하는 자료(<http://www.mindan.prg.kr/shokai07.htm>)에 의하면 동경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2004년 현재 100,8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다수의 뉴커머들이 제외되어 있어 동경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의 전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번 연구의 주요 조사대상은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뉴커머를 중심으로 한 신진 정착 집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올드커머로 불리는 특별영주권자나 귀화인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올드커머 또한 일정한 비율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사카지역의 올드커머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는 2004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 진행하였다. 동경지역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이 지역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에는 349명이⁵⁾ 그리고 심층면담에는 20명이 각각 참가하였다.⁶⁾

II. 동경지역 한인의 일상적 고민

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우리는 먼저, 설문조사에 참가한 동경지역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오사카지역에서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인과 비교해 보고 양 집단 사이의 일상적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오사카지역의 연구에서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세대, 국적, 재유자격 등에 따라 349명의 설문참가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동경지역 설문참가자의 특성을 주요 변수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에 나타났듯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50.7%)이 여성(39.8%)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나 30-40대가 다수(55%)를 점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응답자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국적은 한국국적 소유자가 압도적이었으며, 세대에 있어서는 한인1세가 2세나 3세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한편, 재유자격에 있어서는 귀화인이나 특별영주권자와 같은 올드커머(약 31%)에 비해 영주권자와 정주권자 그리고 단기 체류자와 같은

5)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기관이나 장소(가령, 동경대한민국영사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조총련 동경본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동경본부, 재일본한국인연합회 등)를 방문하여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장소를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9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에 의뢰하여 동경 지역의 21개 민단지부에 각각 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6)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와 달리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선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팀의 현지 방문에 앞서 심층면담의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에 부탁하였고, 각 기관에서 추천한 80여 명의 후보 중에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재유자격, 세대 등의 개인 변수를 고려하여 2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과의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되, 가능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으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취작업을 통해 정리하였다.

뉴커머(약 49%)가 월등하게 많았다.

〈표 1〉 설문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빈도(349명)	비율(100.0)	빈도(418명)	비율(100.0)
성별	남성	177	50.7	196	46.9
	여성	139	39.8	213	51.0
	무응답	33	9.5	9	2.1
연령	10대	5	1.4	7	1.7
	20대	27	7.7	63	15.1
	30대	99	28.4	66	15.8
	40대	93	26.6	62	14.8
	50대	41	11.7	84	20.1
	60대	27	7.7	86	20.6
	70대	16	4.6	30	7.2
	무응답	41	11.7	20	4.8
교육 수준	무학	2	0.6	5	1.2
	초졸	3	0.9	6	1.4
	중졸	11	3.2	59	14.1
	고졸	76	21.8	165	39.5
	대졸	168	48.1	126	30.1
	대학원졸	28	8.0	5	1.2
직업	무응답	61	17.5	52	12.4
	사무직	91	26.1	104	24.9
	전문직	19	5.4	28	6.7
	자영업	43	12.3	76	18.2
	전업주부	50	14.3	45	10.8
	학생	26	7.4	20	4.8
	기타	36	10.3	38	9.1
	무직	16	4.6	36	8.6
국적	무응답	68	19.5	71	17.0
	한국	293	84.0	345	82.5
	조선	1	0.3	23	5.5
	일본	11	3.2	11	2.6
재유 자격	무응답	44	12.6	39	9.3
	귀화	10	2.9	46	11.0
	특별영주권자	97	27.8	290	69.4
	영주/정주권자	84	24.0	39	9.5
	단기체류자	86	24.6	8	1.9
	무응답	72	20.6	35	8.4
세대	1세	98	28.1	44	10.5
	2세	67	19.2	180	43.1
	3세	24	6.9	114	27.3
	4세	0	0	6	1.4
	무응답	160	45.8	38	9.1

이러한 동경지역 설문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오사카지역 설문참가자와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먼저, 연령에 있어서 동경지역에서는 30-40대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 오사카지역에서는 50-60대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동경지역은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오사카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직업의 경우는 양대 지역 모두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에 있어 동경지역이 오사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국적이 있어서는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 모두에서 한국국적 소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동경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선(북한)국적 소유자가 오사카지역에서는 5.5%정도 설문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세대와 재유자격에서 나타났다. 동경지역에서는 한인1세의 비율이 2세나 3세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오사카지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한인2세와 3세의 비율이 1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재유자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동경지역의 경우 영주권자나 정주권자 그리고 단기체류자로 구성되는 뉴커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오사카지역에서는 특별영주권자와 귀화인으로 구성되는 올드커머의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많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⁷⁾

한편, 심층면접에 참가한 20명은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가 각각 9명과 11명이었으며,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부터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재유자격에 있어서는 합법적 단기체류자로 영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권자 혹은 정주권자가 5명, 특별영주권자 혹은 귀화자가 5명이었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뉴커머 중심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뉴커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동경지역에서 뉴커머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보행태적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⁸⁾

2.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실체

가. 일상적 고민의 유형

그렇다면 뉴커머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동경지역의 경우,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주요 고

7) 이러한 결과는 양 지역 한인사회의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사카지역의 한인사회가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한 한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동경지역의 한인사회는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한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참고로 <표 1>의 동경지역 통계를 보면, '재유자격' 및 '세대'의 항목에서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각각 72명과 160명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재유자격에 응답하지 않은 72명 중에는 합법적 단기체류가 끝난 상태에서 정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비롯하여 스스로 단기체류자라고 응답한 86명의 대부분이 세대를 묻는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동경지역에서는 귀화자와 특별영주권자를 합친 약 30%의 올드커머들과 대략 70% 정도의 뉴커머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은 무엇이며, 그러한 고민의 유형은 올드커머가 주류를 형성하는 오사카지역의 한인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다음의 <표 2>에 나타나듯이, 동경지역 한인의 일상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취업과 사업’에 대한 고민이었다. “일상에서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가 무엇이나”라는 질의에 대해 349명 중에서 100명이 ‘취업 및 사업’이라고 응답하여 약 29%에 이르는 한인이 생계형 고민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취업 및 사업’에 이어지는 고민거리로는 ‘육아 및 교육’ 그리고 ‘건강 및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이러한 고민의 유형을 통해 동경지역 한인 집단의 대다수가 아직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동경지역의 이러한 조사결과를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표 2>의 오른쪽 칼럼에 정리되어 있듯이, 오사카지역의 경우 일상에서 부딪히는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는 ‘건강 및 안전’ 문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물론 ‘취업 및 사업’과 ‘육아 및 교육’ 문제가 오사카지역 한인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고민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고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양대 지역 한인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성향이 서로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동경지역의 경우 이민 1세대인 30-40대가 중심을 이루는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와 자녀의 교육 문제가 주요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사카지역은 한인 2-3세에 해당하는 50-60대가 중심을 이루는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경제적 기반의 확보나 자녀의 교육 문제보다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문제가 일상에 있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고민의 우선순위에서의 차이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집단 내에서도 발견된

<표 2>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

고민의 유형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업사업	100	28.7	82	19.6
육아교육	78	22.3	46	11.0
연애결혼	6	1.7	23	5.5
건강안전	73	20.9	134	32.1
노후복지	25	7.2	42	10.0
출세승진	8	2.3	5	1.2
여가취미	7	2.0	11	2.6
대인관계	17	4.9	21	5.0
사회활동참여	6	1.7	17	4.1
자아실현	14	4.0	11	2.6
정체성	5	1.4	16	3.8
무응답	10	2.7	10	2.4
합계	349	100.0	418	100.0

다. 가령, 30-40대의 청장년층의 경우 '취업 및 사업'에 대한 고민과 아이들의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60-70대의 노년층의 경우에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와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유자격에 있어 귀화자나 특별영주권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은 데 비해, 정주권자나 단기체류자들은 '취업이나 사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상적 고민의 실체

우리는 심층면담을 통해 동경지역의 한인들이 당면해 있는 일상적 고민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결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뉴커머 집단과 올드커머 집단 사이의 차이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가령, 뉴커머들에게서는 일본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고민에서부터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노후의 복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고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사회문화적 충격을 그런대로 극복한 올드커머들에게서는 대인관계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민이 두드러졌다. 여기서는 뉴커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일상적으로 봉착해 있는 고민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1) 취업과 사업에 관한 고민

취업 혹은 사업과 관련하여 동경지역 한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출된 고민은 '차별'로 인한 것이었다. 오사카지역의 올드커머들로부터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국적 또는 민족의 차이로 인한 법적·제도적 차별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터라⁹⁾ 우리는 동경지역 뉴커머들의 이러한 호소에 다소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취업 혹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차별에 실제로 시달리고 있었다. 법적·행정적·제도적 차별은 현저하게 완화되었지만 일본 사회의 저변에 짙게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일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재일한인이 취업 혹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 업종을 개업하고 있는 한인들에게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제가 약국을 오픈할 때 관공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도매로 약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일본에는 약제사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는데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약제사회는 직업 동우회잖아요. 말하자면 압력단체 같은... 약국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가입하여 정보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인이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우호

9)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일본국적을 갖지 않거나 통명을 사용하지 않는 한인의 입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일본의 대기업들도 입사 기준에서 이러한 차별 조항을 많이 완화한 상태이다.

적이었어요. “가게를 오픈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도와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매상하고 거래가 잘 안되는데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제비자로 동경으로 이주해와 신주쿠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약제사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아직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영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뉴커머였다. 그녀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조차도 단지 한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한 사례는 면담에 참가한 뉴커머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영주권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뉴커머들 사이에서도 일본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제일한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주류 사회의 내적 정보네트워크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심심치 않게 노출되었다.¹⁰⁾

(2) 자녀의 교육에 관한 고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제일한인이라면 거주지역이나 재유자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고 있는 보편적 고민이었다. 특히, 삶의 터전을 옮겨 안정적인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동경지역 뉴커머들에게 자녀교육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심지어, 면담에 응했던 일부 뉴커머들에게 있어 자녀교육 문제는 일본으로의 이주와 영주를 결심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땅에서 일본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에 있어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었다. 학령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뉴커머와의 면담과정에서 불거진 다음의 이야기는 자녀교육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 매우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육 관련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할지부터... 그런데 우리 에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아직 어려요. 한국에서는 유치원 가기 전부터 조기교육 바람이 분다는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유치원은 보내야겠는데, 어떤 유치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도 모르니까 답답해요. 교육 내용도 일본 사람을 위한 것이 중심적일 것 같아 공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한 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를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에 살기 때문에

10) 이러한 암묵적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의도적인 배제는 오사카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조부모 혹은 부모 시절부터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겪어왔으며 오랜 투쟁 끝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된 고민이자 고통이었다. 그러나 새로이 정착을 시도하는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심각한 고민의 뿌리로 남아 있었다.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일본학교를 보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 고민이 심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에 정착할 것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할 거면 일본 사회와 문화에 친숙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결국 일본학교를 보내기로 한 것이 저희 부부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녀교육과 관련한 고민은 유치원의 소재와 교육내용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언어와 문화의 교육에 대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한 부모의 갈등과 혼란 못지않게 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다는데 있다. 특히 일본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뉴커머의 경우, 한국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교육을 비롯하여 사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는 ‘현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경지역의 뉴커머들은 오사카지역의 올드커머들과는 달리 교육의 질과 내용 그리고 방법과 효과와 관련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다.¹¹⁾ 그들은 홀로 고민하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경험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패턴이 두드러졌다. 결국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그들 각자의 몫이었다¹²⁾. 자녀교육에 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교육철학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소통의 장’이 절실히 보였지만, 그들은 그러한 마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3)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에 관한 고민

2005년 현재, 일본사회는 ‘내외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취지에 따라 재일한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이상의 법적 권리를 획득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11) 오사카지역의 한인에게도 자녀교육 문제는 주요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류를 형성하는 올드커머들에게 있어 문제의 핵심은 일본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있다기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한 교육, 즉, 민족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현실화하여 후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12) “처음에는 한국학교로 많이 기울었는데 한국학교와 일본학교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한국학교에 대해 많이 실망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학교 관계자들의 자세와 환경이 나빴어요.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 교감, 담임이 될 교사가 함께 모여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었어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도 해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후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국어를 따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초빙해 주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어요. 지금 큰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때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경 신오쿠보 지역의 자그마한 한인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K목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선교비자로 일본에 들어갔다가 터전을 잡고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를 결심한 전형적인 뉴커머였다.

13) 5인 이상의 사업소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관할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수 있다. 즉, 최소한 영주권을 가진 자만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현재 영주권은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일본사회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행동이 선량하고, 자산 및 생계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영주권을 받으려고 상담을 했는데, 10년 거주에 5년 경제활동을 하고 일본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5년 경제활동을 한 것은 해당이 되는데, 일본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부분이 애매해요. 가령, 집을 산다든가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영주권이 없으면 집을 구입하기조차 어렵거든요.

9년 전 취업비자로 건너와서 컴퓨터 관련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영주 희망자의 이야기이다. 이 사람처럼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고자 계획하고 있는 뉴커머들이 동경지역에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멀고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토로한다. 체류자격이 불확실해서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다고 속삭인다.

여기서 이들의 고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영주권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실령 만고 끝에 영주권을 취득한 뉴커머라고 할지라도 귀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다양한 세금은 물론이고 연금의 납부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노후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일상적으로 안고 사는 한인이 동경지역에는 의외로 많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금은 꾸준히 납부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보장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 노후가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적을 버리고 귀화를 결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어디 가서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다 보니 고민은 지속되지만 뚜렷한 방책은 없는 것이다.

3.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그렇다면 동경지역의 한인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먼저, 설문조사의 결과를 놓고 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 동경지역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349명중에서 약 74%에 해당하는 259명이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5명으로 약 16%에 불과

하였으며, 고민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27명으로 약 8%에 이르고 있었다.

이처럼 동경지역의 한인들도 오사카지역의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일상적 고민을 각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고민의 대부분이 그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일상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함께 풀어가기도 하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대인관계의 부족과 편협함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고립감이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심층면담과정에서 우리는 거주역사가 길고 밀집도가 높은 오사카지역의 한인사회에 비해 동경지역의 한인사회에는 대인관계의 부족 내지는 편협함에서 오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한인이 은근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경지역의 뉴커머들은 체류와 관련된 법적 신분이 다양하고 거주 지역 또한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오사카지역의 올드커머들보다는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올드커머들은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뉴커머들은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심리적으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고립감이 점차 깊어지면서 고민이 있어도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나서는 경향이 농후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 못지않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한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었다.¹⁴⁾ 몇 차례의 현지 방문조사 기간 중에 우리는 한인끼리 서로 비난하고 갈라서는 모습, 특히, 자그마한 기득권을 가진 선참자들이 후배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뉴커머가 많은 동경지역이 올드커머가 많은 오사카지역보다 특히 심해 보였다. 그러다 보니 동경지역의 뉴커머 사이에서는 고민의 해결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서로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관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보였다.

한편, 동경지역 한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과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의 비율에 있어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표

14)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안 열어요. 서로 경계심이 크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낮은 거를 무척 따지잖아요.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학력 같은 거 따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일본 사람하고 상대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한국사람 만나면 하다못해 옷 입는 거부터 굉장히 번거로워요.” 일본인 남편을 두고 있으며 자녀교육 문제로 귀화한 40대 후반의 여성의 이야기이다.

3)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고민해결의 소극성에 있어서 오사카지역(17.2%)이 동경지역(7.7%)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고민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한인의 비율이 동경지역에 비해 오사카지역에 2.5배가량 많을 정도로 오사카지역의 고민에 대한 대처행태가 훨씬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행태

대처 행태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노력 없음	27	7.7	72	17.2
스스로 해결	259	74.2	267	63.9
주변의 도움	55	15.8	61	14.6
무응답	8	2.3	18	4.3
합계	349	100.0	418	100.0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주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힘들지요. 한국 같으면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 상의도 하고, 직장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하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삭막해요. 물론 제가 일본말이 아직 서투른 이유도 있지만, 고민이 있어도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고민을 혼자서 안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인 모임을 기웃거리려요. 최근에는 신주쿠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나가 보았어요. 아직 종교적 믿음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일상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관계로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서 8년 동안 억척스럽게 노력한 끝에 지금은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영주를 결심하고 있다는 뉴커머의 이야기이다. 이 사례는 동경지역의 30-40대 뉴커머들에게서 종종 듣게 되는 인생 스토리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오사카지역의 50-60대의 올드커머들과는 달리 동경지역 뉴커머들의 대부분은 아직 타국에서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보니 고민에 봉착할지라도 쉽게 체념하려 하기보다는 무엇이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짙어 보였다. 단지, 아직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그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Ⅲ.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추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동경지역 한인 중의 소수(약 16%)만이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약 74%에 이르는 대다수는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주변’은 누구이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매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경지역 한인들이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①선호하는 정보원은 누구이며, ②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③그러한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실체

가. 정보원의 유형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가한 동경지역 한인들이 가장 선호한 대상은 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3.8%가 가족에게서 도움을 구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친구에 대한 선호도도 다른 대상에 비해 매우 높아, 응답자의 25.5%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혈연이나 친분에 따른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는데 비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각각 6.6%와 10.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만을 놓고 볼 때 동경지역 한인은 오사카지역의 한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표 4>에 나타나듯이 각 정보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양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오사카지역 한인의 선호도가 69%로 압도적인데 비해 동경지역 한인의 선호도는 약 34%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역으로,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동경지역 한인(17.5%)이 오사카지역 한인(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동경지역의 한인이 오사카지역에 비해 전문가나 관련기관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비중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가족	33.8	69.1
친구	25.5	18.7
이웃	4.3	1.4
직장동료	4.6	2.6
전문가	6.6	3.6
관련기관	10.9	1.4
무응답	14.3	3.2
합계(%)	100.0	100.0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덜고자 연구팀은 정보원에 대한 양 지역의 선호도를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연령, 직업, 학력, 재유자격, 그리고 고민의 유형 등에 따라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연령에 있어서는 30-40대가,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그리고 재유자격에 있어서는 합법적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뉴커머 집단에서 전문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의 유형 또한 정보원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령, 자녀교육이나 결혼문제와 같은 개인적 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정보원을 선호하는 반면, 세금이나 법률문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민은 전문가나 관련기관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을 찾아 나서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처럼 인구학적 특성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고민의 유형에 따라 제일한인이 선호하는 정보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정보원의 실체

그렇다면 동경지역의 한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정보원의 실체는 무엇인가? 가족을 제외하고 그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즉, 친구,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전문가)은 누구이며, 정보를 얻고자 찾아가는 관련기관은 어디인가?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은 한국인인가 혹은 일본인인가? 그들이 방문하는 관련기관은 한인기관인가 혹은 일본기관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지금부터 설문과 면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대해 하나씩 논의해 보도록 한다.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참가자에게 던졌던 질의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 상대로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 둘째는 도움이나 정보를 구하고자 방문하는 기관이 한인기관인지 일본기관인지에 대해서였다. 다음의 <표 5>는 이러한 질의에 대한 설문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5>에 나타났듯이, 동경지역의 한인들은 고민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하는 상대로 일본인보다는 같은 한인을 선호하였다. 설문참가자의 약 49%가 상담대상으로 한인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

<표 5> 선호하는 정보원의 실체

	사람		기관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한국	48.7	49.8	36.1	32.1
일본	34.4	39.5	40.1	55.3
무응답	16.9	10.8	23.8	1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면, 일본인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4%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오사카지역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제일한인이 고민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 같은 한인을 선호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층면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동질감에서 한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처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같은 처지에 있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한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에서 일본인보다는 한인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동경지역의 뉴커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심층면담에 응했던 뉴커머들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주변에 비자 문제로 곤란해 하는 단기체류자가 제법 많은데, 이런 경우 일본인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인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비자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동포들이 비자 문제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서로 물어보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전문적인 의견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보통 한인 변호사를 찾아가지요. 일본인 변호사중에는 일본의 실정은 잘 알지만 제일한인의 입장이나 배경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인이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같은 한인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민의 유형에 따라 혹은 정착한 지역이나 기간에 따라 한인보다는 일본인을 선호하는 한인의 비율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동경지역의 경우 10명 중에 3.5명이, 오사카지역의 경우 10명 중에 4명이 정보원으로서 한인보다는 일본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본 주류사회에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한 한인들에게서 두드러졌는데, 일본에서 주류사회에 편입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한인보다는 일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판단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¹⁵⁾

한편,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조사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즉, 동경지역의 한인들이 선호하는 기관의 실체는 사람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도움이나 정보를 구할 때 한인기관과 일본기관 중 어느 기관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들은 일본 주류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가 40%이고 한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36%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경지역의 한인이 뉴커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

15)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받아도 일본사람들 쪽이 신뢰가 많이 가요. 뭐 한국사람들이 못미더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일본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본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일본인 이웃이나 아이 친구 엄마 등에게 물어보지요. 차를 구입해야겠는데 어떤 차가 좋은지, 확원은 어디가 좋은지,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슈퍼는 어디가 좋은지 등.” 동경 외곽의 주택가에 살고 있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40대 초반의 뉴커머의 이야기이다.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¹⁶⁾

그렇다면 동경지역의 한인이 일상적 정보원으로 일본 주류사회의 기관을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을 이해하고자 동경지역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에 대해 한인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면담에 응했던 한인들은 오사카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단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으로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기관들이 한인들의 일상적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면담에 응했던 한인의 불만어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자.

민단이 재일교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취약하지요, 매일 자리싸움이나 하고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런 것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실제로 민단에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저같은 뉴커머들은 민단에 거의 의뢰하지 않지요, 민단도 뉴커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거의 단절된 상태죠, 그 건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공회의소 회의에 어쩌다가 보지만 회원 가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쪽에 모여 계신 분들이 거의 올드커머이고 비즈니스보다는 친목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가진 비즈니스 정보를 오픈하려 들지도 않고...

신주쿠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뉴커머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이 사람의 판단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는 데 있다.¹⁷⁾ 특히, 뉴커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동경지역의 경우 민단이나 상공회의소는 한인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올드커머들의 '귀족' 조직일 뿐 뉴커머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경지역의 뉴커머들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인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근자에 결성하였지만, 한인회 또한 아직은 결성 초기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뉴커머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그 활동 또한 미약한 상태였다.¹⁸⁾

이렇듯 동경지역의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데 더해, 뉴커머들이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행정업무(비자와 여권, 재외국민등록, 호적 등의 문제)의 많은 부분

16) 물론 오사카지역의 경우도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지만, 오사카 한인사회의 구성이 일본사회로의 일상적 적응이 끝난 올드커머 중심의 커뮤니티라는 점과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가 제구실을 못해온데 대한 실망감이 오사카지역 한인들 사이에 깊게 깔려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사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하였다.

17) 민단은 재일한인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한국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0년대 이후 조직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다.

18) "한인회라는 것이 이름은 '한인'인데, 사실은 오오쿠보 지역에 있는 상점 연합회라고 봐요, 가입한 사람들 자체가 그 지역에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주로 가입해 있어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뉴커머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현재 일본방송(NHK)에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뉴커머의 이야기이다.

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면담자 중에는 이들 기관의 융통성 없는 일처리와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를 회상하며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지는커녕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거나 업무를 서로 미루는 모습을 회상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신고나 비자업무를 처리하러 가면 정말이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너무 불편해요. 일처리에 융통성이 없고 직원들이 너무 딱딱하고 불친절해요. 진짜 너무 화났던 것은 얼마 전에 영사관 민원실에 갔는데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았어요. 일본에 사진지 오래 된 아줌마인 것 같은데 한글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대신 써주면 될 터인데 안 써주는 거예요. 아줌마가 30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몹시 급해 해서 제가 대신 써 드렸거든요. 정말이지 기가 차가지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해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정말이지 가기 싫어요. 일본 구청에 가면 얼마나 친절한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5년째 일본의 컴퓨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뉴커머의 이야기이다.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 가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안가고 싶다는 말이다. 면담에서도 드러나듯이, 재일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민단과 한인회 등 뿐만 아니라 재일한인의 행정 관련 업무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과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한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한인들의 일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그들은 오늘도 안고 있는 것이다.

한인기관에 대한 이렇듯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상적 대소사의 처리를 위해 구청이나 구약소와 같은 일본기관을 이용해 본 한인들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다. 면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기관은 친절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한번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¹⁹⁾ 그러나 대부분의 뉴커머들에게 있어 일본기관은, 때로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때로는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때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용이하게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곳으로 남아있었다.

2.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체

지금까지 우리는 재일한인이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의 유형과 실체에

19)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일본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어보면, “이 문제는 누구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거나 “거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어떤 때는 변호사나 관련 단체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적 영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지로 향하고 있다. 앞서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듯이, 동경지역 한인의 절대 다수(74%)는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면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활용하는 일상적 정보매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들이 평상시에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체에 대해 논의해 보자.

가. 정보매체의 유형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신문, 잡지, 책, TV,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일상적 정보매체 중에서 동경지역의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349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40%를 넘는 141명이 인터넷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표 6>의 두 번째 컬럼은 그들의 응답 내용을 선호도의 비중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인터넷에 이어 신문, TV, 책 등의 순으로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잡지나 라디오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아 일상적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경지역에 대한 이러한 조사결과는 오사카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거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상적 정보매체는 신문이었다. 조사대상자 418명의 약 37%인 154명이 신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들이 신문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매체는 TV이었으며 인터넷은 순위에 있어 3위로 처져 있었다. 이외에 책에 대한 선호도는 동경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잡지와 라디오는 동경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6>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비중(%)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신문	19.2	36.8
잡지	4.3	4.8
책	13.5	8.4
라디오	1.1	1.7
TV	14.3	23.0
인터넷	40.4	20.1
무응답	7.2	5.2
합계	100.0	100.0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앞서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양 지역 한인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사카지역에서는 전통적 정보매체인 신문과 TV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30-40대의 청년 및 중년층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동경지역에서는 인터넷에 대

한 선호도가 전통 매체인 신문이나 TV에 대한 선호도 보다 2-3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 선호도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는 양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이 보다 명확해진다. 가령, 인터넷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는 20대(63%), 30대(59.6%), 40대(55.1%)의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신문이나 TV에 대한 선호도는 60대(54.2%)와 70대(83.3%)의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력이 낮을수록 신문과 TV를 선호하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청장년층의 고학력자가 많은 동경지역의 한인사회에서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정보매체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그들은 인터넷을 생활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비즈니스를 위한 매개체로서,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뉴커머들 사이에서 인터넷은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수단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나. 정보매체의 실체

그렇다면 동경지역의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이들 정보매체의 실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언어는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지금부터 설문과 면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대해 하나씩 논의해 보자.

먼저, 언어에 있어 동경지역에서도 오사카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약 38%)보다는 일본어(약 48%)의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사카지역의 경우 일본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약 84%로 한국어를 선호하는 사람(12%)에 비해 압도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양 지역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언어에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이렇듯 뚜렷한 차이가 나는 까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 지역의 한인사회가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뉴커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경지역에서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²⁰⁾

언어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는 정보매체의 운영주체에 대한 조사결과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표 7>에 나타나듯이, 동경지역의 경우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약 39%)가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약 2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오사카 지역에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한인매체에 비해

20) 이러한 사실은 동경지역 한인의 언어 선호도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쉽게 입증된다.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연령층은 20대(45.8%), 30대(55.7%), 40대(45.2%)로, 50대(23.5%), 60대(4.8%), 70대(16.7%)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7%가 한국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젊은층의 한국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의 뉴커머의 비율이 높은 동경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약 5 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보다 흥미로운 조사결과는 정보매체의 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에서 나타났다. <표 7>의 오른쪽 칼럼에 정리해 놓았듯이, 동경지역의 경우 정보매체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 있어서는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²¹⁾ 유독 인터넷만은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전체 응답자중 약 38%가 한인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 사이트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32%에 머물렀다. 이 또한 동경지역 한인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²²⁾

<표 7>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실체(%)

	오사카지역	동경지역						
	전체	전체	신문	잡지	책	TV	라디오	인터넷
한인매체	16.0	24.4	23.8	23.8	30.1	14.6	16.3	37.5
일본매체	73.2	38.6	50.4	44.4	38.7	47.3	58.7	31.8
무응답	10.8	27.0	25.8	31.8	31.2	38.1	24.9	3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러나 이러한 운영주체에 따른 정보매체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매체로서의 유용성에 있어서는 일본매체가 한인매체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신문이나 TV는 물론이고 인터넷 사이트 또한 한인매체는 모국이나 교포사회에 관한 정보매체로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매체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²³⁾ 이에 비해, 일본 주류사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매체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월등히 우수하다 보니, 일본어 해독능력이 뒤지는 일부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곤 뉴커머들조차 일상적 정보매체로서 일본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동경지역의 한인이 선호하는 일상적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유형과 실체에 대해 논의하

-
- 21) 전통적 매체 중에서는 책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비록 일본책보다는 낮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약 30%)이 한국책을 선호하고 있었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한국책은 주로 여가생활을 위한 소설, 사업을 위한 경영서, 그리고 자녀의 한글학습을 위한 아동용 도서 등이었다.
 - 22) 이러한 선호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령, 10대-75%, 20대-57.1%, 30대-63.5%, 40대-50.7% 등), 직업적으로는 학생층(71%)과 사무직 계통에서, 그리고 재유자격에 있어서는 단기체류자나 정주권자일수록 한인 사이트를 선호하고 있었다.
 - 23) 이와 관련하여 연구팀은 “한인사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가 일본사회에서의 일상과 관련된 관심사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3만이 ‘그런 대로 유용했다’는 평가를 내렸을 뿐 2/3에 이르는 다수가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였다. 논의의 과정에서 동경지역의 한인이 특정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간헐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정보원과 정보매체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²⁴⁾

다음의 <표 8>에 정리되어 있는 동경지역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349명의 동경지역 조사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130명(37.2%)이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접근성'을 선택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4명(35.5%)이 '언어의 용이성'을 선택하였으며, '정보의 양'을 선택한 사람이 48명(1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접근성'과 '언어의 용이성' 그리고 '정보의 양'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정보의 질'이나 '비용'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같은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표 8>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경지역		오사카지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접근성	130	37.2	114	27.3
언어	124	35.5	175	41.9
정보의 양	48	13.8	52	12.4
정보의 질	17	4.9	24	5.7
사생활보장	4	1.1	16	3.8
비용의 경제성	5	1.4	4	1.0
무응답	21	6.0	33	7.9
합계	349	100.0	418	100.0

동경지역의 이러한 조사결과를 오사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전체 418명 중에서 약 42%에 이르는 175명이 '언어의 용이성'을 정보소스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반면, '접근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114명(약 27%)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양 지역의 선호도에 대한 영향 변수는 1, 2위가 바뀌어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의 양'은 여전히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12.4%)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 변수였고, 그밖에 '정보의 질'이나 '비용' 혹은 '사생활 보호'와 같은 변수가 갖는 비중은 동경지역과 유사하게 미미하였다.

설문조사의 이러한 결과는 재일한인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정보의 추구에 있어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뉴커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동경지역의 경우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

24) 참고로, 오사카지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와 동경지역에 대한 2차 설문조사에 참가한 전체(767명) 설문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보원 및 매체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이 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선호도에 대한 영향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처리와 분석 결과는 2005년 3월에 후속 논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만,25) 정착한 세월이 상대적으로 긴 올드커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오사카지역에서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보다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크게 나타난 점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문은 오사카지역의 조사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본 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오사카지역의 설문참가자 중에서 60-70대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로 동경지역(12%)보다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에 더해, 고졸이하의 저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약 69%로 동경지역(44%)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러한 저학력 고령자 중에는 언어(일본어 든 한국어든)의 해독 능력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이처럼 그들이 안고 있던 언어 장애는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26)

재일한인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번째 특징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사람이나 기관과 같은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접근성'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 변수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접근성'은 단순한 물리적 혹은 지리적 근접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접근성'은 '호감이나 신뢰감이 느껴져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접근하여 고민을 털어놓기가 수월한 상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처럼 물리적 접근보다는 심리적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그들은 정보원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었다.27)

우리가 주목한 마지막 특징은 재일한인의 다수가 정보의 질보다는 정보의 양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정보의 질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한인이 양 지역 모두에서 5% 내외를 점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의 질보다는 양을 선호하는 사람이 2-3배나 높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왔다.28)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의 일단은 심층면담에 참가했던 60여명의 녹취록을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 재일한인사회에는 정보 자체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일상적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아예 체념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다보니 정보의 '질'은 차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늘 아쉽기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는 고사하고 정보 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정보빈곤층이 재일한인사회에는 너무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

25) 동경지역의 뉴커머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팀은 뉴커머 특히, 거주기간이 짧았던 뉴커머에게 있어 일본어 구사 능력의 한계는 일본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6) 이는 1차 방문조사에서 오사카지역의 노인복지시설(사랑방)과 교토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루화)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이다. 해방 전 강제 징용이나 징집 등에 의해 끌려온 한인 노인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문맹자였으며, 생존을 위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들 대부분은 문맹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27) 심층면담에서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고민의 상담자로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민단이나 영사관보다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상담기관으로 선호하는 이유도 이러한 심리적 접근성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토로하였다.

28) 주지하다시피, 특정 집단의 정보행태에 관한 사례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이 정보원이나 매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왔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러한 현실을 계량적 수치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행태를 오사카지역의 한인에게서 나타났던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올드커머 중심의 오사카지역과는 인구학적 구성에서 상이한 동경지역에서 뉴커머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주 집단이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은 무엇이며, 그러한 일상적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러한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파악된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서는 오사카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와는 다른,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흥미를 끌만한 여러 가지 특징이 관찰되었다.

먼저, 양 지역의 한인들이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유형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오사카지역 한인사회의 경우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이주 세력이 중심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땅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동경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취업이나 사업과 같은 생계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의 수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들이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유형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양 지역의 한인들에게서 여러 면에서 유사한 행태가 발견되었다. 동경지역의 한인 또한 오사카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일상적 고민을 각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특히, 동경지역 한인에게서는 사회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해 일상적 고민에 봉착하여도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뉴커머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이주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편협함과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적 고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적극성에 있어서는 동경지역의 뉴커머들이 오사카지역의 올드커머들보다 앞서 있었다.

이어, 고민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실체에 있어서는 양 지역의 한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양 지역의 한인들 모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전문가나 관련기관과 같은 공식적 정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선호도의 비중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명확하였다. 즉, 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는 동경지역이 훨씬 높았으나, 비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는 오사카지역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 차이에 더해, 정보원의 성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또한 뚜렷하였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와 같은 인적 정보원의 경우에는 양 지역 모두에서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양 지역 모두에서 일본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특히, 양 지역 모두에서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과 한국의 현지 기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원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었다.

신문이나 TV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일상적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도 양 지역은 차이가 있었다. 오사카지역의 한인이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신문과 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인데 비해, 동경지역의 한인 사이에서는 첨단매체인 인터넷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데이터를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동경과 오사카 양 지역 한인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더해, 정보매체의 성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오사카지역에서는 정보매체의 언어로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었으나 동경지역에서는 그 선호도의 격차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매체의 운영주체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오사카지역의 경우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동경지역에서는 정보매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적 정보매체에서는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인터넷에서만큼은 한인매체가 더욱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과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언어와 접근성 그리고 정보의 양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영향 요인에서도 지역적 차이는 뚜렷하였다. 가령, 오사카지역에서는 언어가 그리고 동경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보다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역시 연령이나 학력 그리고 재유자격과 같은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파악한 것처럼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는 관련 학계와 정책 기관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소수민족 집단이 갖는 사회행태학적 특성에서부터 그들의 인구학적 구성과 거주 지역에 따른 정보추구행태에서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정보학자들과 정보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 왔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석은 재일한인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단계에서 뒤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일본 현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사회에는 일상적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몇몇 매체가 나름대로 기능하고 있지만,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미흡하였다. 특히, 재일한인사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줄만한 ‘정보소통의 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제,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후속 작업을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환경을 살살이 파헤쳐 실체를 드러내고, 그러한 정보환경이 그들의 정보행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소의집단에 대한 정보행태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273-296.
-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在日韓人の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222-248.
- Agada, J. “Inner-City Gatekeepers: An Exploratory Survey of Their Information Use Environ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50, No.1(1999), pp.74-85.
- Bates, M. J. *Learning about Your Users' Information Needs: A Key to Effective Service*. Paper presented at the PIALA '95: Preservation of Culture Through Archives & Libraries, Colonia, Yap,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1996.
- Chatman, E. A.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1991), pp.438-449.
- Dervin, Brenda. “From the Mind's Eye of the User: The Sense-Making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y.” In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dited by J. Glazier & R. Powell.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2.
- Metoyer-Duran, Cheryl . “Information Gatekeep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28(1993), pp.111-150.
- Pendleton, Victoria E. M. & Elfreda Chatman. “Small World Lives: Implications for Public Library.” *Library Trends*, Vol.46(1998), pp.732-752.
- Savolainen, Reijo.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7(1995), pp.259-294.